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 사랑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맛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플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더 게임:0시를 향하여(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30 고행이 보인다
11	00 동행(재) 55 UHD 스테라(재)	00 99억의 여자(재)		
12	00 KBS 뉴스 12	10 우아한 모녀(재)	00 12 MBC 뉴스 20 두 번은 없다(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험설계
1	00 신년기획 사랑의 가족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푸르기 식사교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2020 설날장사 씨름대회 <태백장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 50 뽀뽀뽀 모모야 놀자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4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바른미래당>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제21대 총선 정당정책연설 <자유한국당>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스페셜 <나주시>	00 시노스톤 프라이م 30 주간연예수첩	00 5 MBC 뉴스 25 양코르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최강 1교시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더 게임:0시를 향하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천포작 세상에 이련일이
9	00 KBS 뉴스9			
10	00 다크 인사이트 55 더 라이브	00 99억의 여자	05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	00 맛남의 광장
11	35 UHD 스테라 40 KBS 네트워크 특선 올댓뮤직	10 설기획 해피투게더	05 문화콘서트 난장	50 설날특선영화 <나를 찾아줘>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5 유아더월드 스페셜	

‘미스터트롯’ 시청자투표 100만 돌파 ‘눈앞’

오늘 밤 10시 순위 공개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17.7%(닐스코리아 유료가구)를 돌파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 <사진>이 대국민 응원투표(시청자 투표)도 100만표 돌파를 앞두고 인기를 입증했다.

‘미스터트롯’ 홍보사 3HW COM은 21일 지난 3회 방송 후 스마트폰 공식 투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표를 시작한 지 다섯 만에 100만표를 목전에 뒀다고 밝혔다.

응원 투표는 탈락자를 제외하고 추후 결선 점수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며 매일 1회씩, 1인당 3명까지 중복으로 투표할 수 있다.

23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4회를 통해 순위가 공개될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측은 지난 17일 예선 곡 베스트 앨범도 발표했다.

발매 직후 앨범 수록곡 32곡 중 30곡이 멜론 성인가요 차트에 올라간 데 이어 발매



후 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곡이 차트 상위권을 유지하며 화제 물이 중이다. 제작진은 “치열했던 ‘101팀 마스터 예

선’을 끝내고 드디어 본선 미션에 돌입했다. 본선 1라운드 두 번째 이야기는 더욱 치열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심은경, 일본 영화제 4관왕

배우 심은경<사진>이 일본 내 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22일 소속사 매니지먼트AND에 따르면 심은경은 영화 ‘신문기자’로 제74회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일본 마이니치 영화 콩쿠르는 마이니치 신문과 스포츠닛폰 등이 주최하는 영화상으로 1946년에 만들어졌다.

앞서 제43회 일본 아카데미상 우수 여우주연상과 제34회 다카사키 영화제 최우수 여우주연상 수상 소식도 전해졌다.

일본 아카데미상에서는 영화 ‘신문기자’로, 다카사키 영화제에서는 영화 ‘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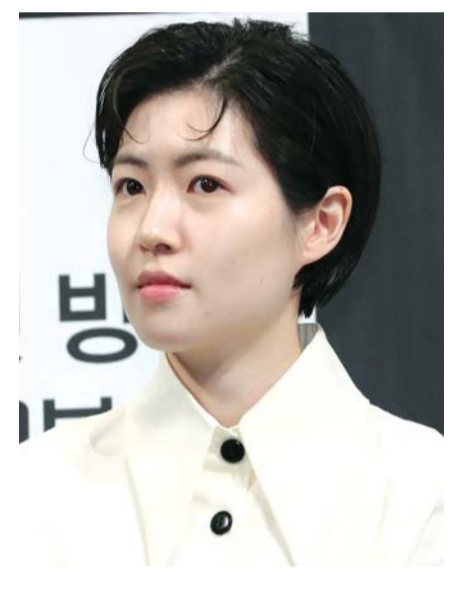
아워’로 상을 받았다.

‘신문기자’는 일본 현 정권에서 벌어진 정치 스캔들을 통해 국가와 저널리즘의 이면을 비판한 영화로, 심은경은 주인공 기자 요시오카 에리카 역을 맡아 일본어로 연기했다.

‘블루아워’는 광고디렉터로 일하는 스나다가 할머니 병환안을 위해 고향으로 향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로 심은경은 주인공 스나다의 친구 키요우라를 연기했다.

지난해에는 ‘신문기자’로 일본 타마시네마 포럼에서 최우수 신인여우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3일(음 12월 29일 乙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일정한 기준과 체계를 하에서 처리하라. 48년생 눈은 풍년인데 입은 흉년이다. 60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으니 과감하게 차치해도 된다. 72년생 결코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다. 84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이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다. 96년생 희구한다면 용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2, 95

丑 37년생 욕심을 버린다면 큰 손해를 면하게 된다. 49년생 고르지 않는 성국이다. 61년생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73년생 기존의 틀이 불편하다면 차체에 그 골레에서 벗어나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85년생 어려움은 닦쳐도 지혜는 샘솟는다. 97년생 보기 드문 길사가 기다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9, 80

寅 38년생 이해관계를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50년생 가변적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라. 62년생 개별적인 고찰이 옳은 판단을 낳으리라. 74년생 가장 견실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 86년생 부담스럽다면 피해버리는 것이 낫다. 98년생 위험 요소를 유념하면서 주의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38, 97

卯 39년생 부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체를 파악 하자. 51년생 의외로 들어온 것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63년생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옳다. 75년생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87년생 성곡을 아우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 99년생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가 바람직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8, 57

辰 40년생 차체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옳다. 52년생 득이 되리라고 여겨 왔던 것이 집이 될 수도 있다. 64년생 주저하지 말고 가져 가지 버리는 것이 지혜롭다. 76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리니 기쁘게 경사라 할만하다. 88년생 현혹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라. 00년생 잔손질이 여러 번 가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6, 45

巳 41년생 한 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 없는 위상이니라. 53년생 힘든 만큼 효과가 확실하 나타날 것이다. 65년생 옛 일이 괴롭히나 큰일은 아니다. 77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필코 이루리라. 89년생 남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01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근면해진다. 행운의 숫자 : 55, 64

午 42년생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판세이다. 54년생 약간간 신경 쓰다보면 머지않아서 호전 되겠다. 66년생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할만 하다. 78년생 뜻밖의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 두루 살펴보자. 90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02년생 남 좋은 일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3, 88

未 31년생 평소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인데 뻔하다. 43년생 상대의 말을 경청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55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67년생 구체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느니라. 79년생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91년생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집됨으로 작용한다. 행운의 숫자 : 94, 89

申 32년생 제사 덕분에 이밥을 먹는 격이로다. 44년생 갑급해 왔던 것이 곧 해결 되겠다. 56년생 점검해보는 것이 위험을 방지하게 된다. 68년생 거친 파동의 시기를 보낸 후에 조금씩 진정 될 것이다. 80년생 일관되게 진행한다면 궁극적으로 이루리라. 92년생 주된 것에 치중 하다보면 부수적인 것에 소홀해진다. 행운의 숫자 : 34, 87

酉 33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45년생 유명무실한 것에는 미련을 들 만한 명분이 서지 않는다. 57년생 얽힌 데 뚫힌 격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81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 될 것이다. 93년생 반드시 이해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행운의 숫자 : 75, 25

戌 34년생 알고도 모르는 척 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니 눈 딱 감고 있어야. 46년생 전혀 이해 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겠다. 58년생 과욕하지 말라. 70년생 호기심의 갈증을 더하는 비밀이 보인다. 82년생 다양성에 기초한 균형 감각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와 있다. 94년생 상황이 발생하 기도 전에 마음부터 앞서겠다. 행운의 숫자 : 17, 39

亥 35년생 전연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47년생 여단수족의 환경에 처한다. 59년생 효과를 보지 못 하리라. 71년생 비슷한 사례를 참고한 후에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83년생 심혈을 기울인다면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이 다. 95년생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02, 13

